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현장의 미술 감상 수업에서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 제안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우

학교현장의 미술 감상 수업에서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 제안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우

# 인 준 서

김지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이해진 \_\_\_\_\_ 

심사위원 \_\_\_\_\_ 임상빈 \_\_\_\_\_ 

심사위원 \_\_\_\_\_ 박세연 \_\_\_\_\_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여러 유형의 인지양식 가운데 심리학자들과 교육연구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이 바로 장독립(field independence)과 장의존(field dependence) 인지 양식이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을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독립형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방해요인에 대해 영향받지 않는다. 반면, 장의존형은 방해요인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관심도 많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의존한다(신명희 외, 2014).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지양식에 따라 미술감상 수업에서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지양식이 미술감상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본 바로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감상 학습유형은 극과 극의 차이점을 보였다. 작품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으로 미술감상 수업을 진행 할 때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장독립형 학생들의 경우 수업방법에 대해 만족했지만 반대로 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그저 지식의 나열이나 표현 활동의 전(前)준비 단계 정도로만 생각했다. 앞서 이야기한 방법과는 다르게 연구자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함께 작품 읽기를 하자 장독립적 학생들은 전문지식을 전달받는 평소 감상 수업방법을 더 선호했다. 반대로 장의존적 학생들은 옆 사람과의 감상교류를 통한 방법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처럼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은 성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인터뷰를 참고하여 같은 성향의 학생들끼리 구성원을 이뤄 조별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습적인 면에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같은 인지양식의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활동할 때 지향하는 학습 방법이 비슷하여 구성원 간의 이해와 배려심이 높아지고 감정교류도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생활 외에도 다른 집단이나 혹은 성인이 되어 성향의 차이점으로 힘들어하는 사례는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지양식의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조별학습을 하며 서로 의견교류를 하는 것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전문성을 높인 설명식 강의법을 섞어서 하는 것이다. 설명식 강의법을 지루해하고 비선호하는 장의존 학생들은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얘기하거나 현재 유행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를 들면 유튜브 소개나 게임의 활용, 재밌는 활동지 등- 재미를 준다면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 중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속하든지 개개인(학습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경쟁과 창의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미술(예술) 감상 교육에서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학습은 학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양질의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적 편리함에 익숙하고 전 세계적으로 침범한 바이러스의 창궐로 서로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학교라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연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본 연구에서 이해하고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주제 및 문제 .....	4
II. 이론적 배경 .....	6
1. 인지주의 .....	6
1) Witkin의 인지양식 .....	6
2)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성 .....	7
2. 학습자 중심의 감상 교육에 대하여 .....	10
1) 학교 미술 수업에서 감상 수업의 현황 .....	11
2) 감상 교육의 필요성 .....	12
3) 학습자 중심의 감상 교육 .....	15
III. 연구 방법 및 대상 .....	17
1. 질적 연구 방법 .....	17
2. 연구 디자인 .....	18
3. 연구 대상 .....	20
1) 연구 대상 선정 방법 .....	21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	22

IV. 연구수행 및 결과분석 .....	24
1. 연구 참여자 1 : 학생A .....	24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	24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26
①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	26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	30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	32
2. 연구 참여자 2 : 학생B .....	36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	36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37
①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	37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	39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	41
3. 연구 참여자 3 : 학생C .....	45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	45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46
①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	46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	48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	50
4. 연구 참여자 4 : 학생D .....	53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	53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54
①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	54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	56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	58

V. 논의 .....	62
1.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필요성 .....	63
2.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	66
VI. 결론 .....	7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차이 .....	9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	23
[표 3]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에 따른 감상 수업의 태도 .....	66
[표 4] 연구대상자의 선호하는 수업 방식 .....	67

## 그림 목 차

[그림 1] 학생A의 잠입도형검사지 .....	24
[그림 2] 학생A의 설문지 .....	25
[그림 3] 클로드 모네, 수련, 150×197cm, 캔버스에 유채, 1916-1919 .....	34
[그림 4] 학생B의 잠입도형검사지 .....	36
[그림 5] 학생B의 설문지 .....	36
[그림 6] 수렵도 .....	42
[그림 7] 학생C의 잠입도형검사지 .....	45
[그림 8] 학생C의 설문지 .....	45
[그림 9] 데이비드 호크니, 풍덩, 243.8×243.8cm, 캔버스에 유채, 1967 ...	51
[그림 10] 학생D의 잠입도형검사지 .....	53
[그림 11] 학생D의 설문지 .....	54
[그림 12] 뭉크, 절규, 83.5×66cm, 캔버스에 유채, 1893 .....	5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는 학생을 위한 수업 디자인을 구상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본인의 한정된 경험과 성향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생 중심의 수업 디자인이 아닌 교사에게 한정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각각의 학생들에게는 주체적 성격이 있고 그 성향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은 학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있으며, 문화에 따른 차이나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성별, 학습 속도, 진행 수준, 선호환경 또한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미술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원하는 수업방법도 모두 다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다양성을 무시한 고정적이고 관습적이며 학습유형에 치우쳐진 수업이 학생들에게 동등한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 효과나 질적인 면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자가 아동 미술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많은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의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원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를 들면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중간중간 자신의 작업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작품을 결과물만 보여주길 원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작품이 중간과정에서 평가 받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림의 방향이 자신이 원하

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와 상의하는 것보다 혼자 수습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친구와 함께 협동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다른 학생과 교류 없이 홀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학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했다.

김황기(2014)는 보통의 미술수업에서는 ‘설명식 학습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정한 수준, 다른 말로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하는 ‘탐구적 학습방법’을 터득해야만 한다고 한다(김황기, 2014). 한가지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다양한 인지양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적 학습방법’을 터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성향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원하는 수업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어느 한 쪽의 방법만이 혹은 일방적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학습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수업은 감상 수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다. 반면에 일방적인 소통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는 감상 수업에서는 인지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실기수업이 아닌 감상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지양식은 수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감상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게 되었다.

인지양식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별화 내지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지양식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김철성, 2013).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상황적이며 협력적, 체험적인 학습 환경을 통해 학

습자들의 개별 특성과 관심사가 반영된 사회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조력자로서 학습자와의 상호 존중을 이루는 것을 지향해야한다(이채원, 김효정, 2020).

인지양식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알아가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돋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이는 올바른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인지양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 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본다면 인지양식과 학습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술 과목에서도 꼭 필요하다(김철성, 2013). 방숙희·강 완(2017)의 연구에 의하면 장의존적 인지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Field)에 의존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그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다. 장독립적 인지 양식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자체에 집중함으로 외부의 영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방숙희·강 완, 2017). 장독립형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 요인에 대해 영향받지 않는다. 반면, 장의존형은 방해 요인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사회 분야에 관심도 많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의존한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인지 양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은 학습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장의존-장독립 유형의 학생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법과 원하는 수업 방식도 다를 것이다.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적합한 감상수업을 구상한다면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좋은 미술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렇듯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의 특성은 미술수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한 가지 방법의 수업 디자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신과는 맞지 않는 수업 방식에 소외되는 학생

이 발생하고 미술수업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본 연구자는 미술감상 수업을 통해 그 과정에서 장(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독립 학습자와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의존 학습자의 특성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다른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감상수업에서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인지 양식에 따른 선호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장독립-장의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교수법이 미술 감상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의 직접 인터뷰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특성에 따라 다른 인지양식의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종합한다. 그 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디자인한다면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 기준으로 분반 수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두 즐겁고 바람직한 수업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 2. 연구 주제 및 문제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의 학습자는 대비되는 특성이 있다. 장독립형은 주변 상황으로 부터 자신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방해 요인에 대해 영향받지 않는다. 반면, 장의존형은 방해 요인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관심도 많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의존한다(신명희 외, 2014). 이렇듯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미술수업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한 가지 방법의 미술수업 디자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신과는 맞지 않는 수업방식에 소외

되는 학습자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장(field)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독립 학습자와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의존 학습자의 특성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다른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두 유형에게 맞는 미술감상 수업의 교수법을 제안함으로써 두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미술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에 따른 특성에 따라 미술 감상 수업에서 학생들의 선호하는 미술 감상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두 가지 인지 양식에 따라 어떤 다른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 할 것인가?

셋째, 장독립 인지 양식과 장의존 인지 양식의 학생들이 미술감상 수업에 있어서 함께 수업을 하는 것과 분리되어 수업을 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인지주의

본 장에서는 인지주의에 대해 서술한다. 심리학자인 Herman Witkin(1954)의 인지양식인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이론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 대해 조사한다.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 1) Witkin의 인지양식

인간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을 지각할 때 그 대상에 자신의 능력이나 정의적 특성에 따라 수정을 가한 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방식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 인지양식이라고 한다. 인지양식의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였다(최문정·정동열, 2013). 인지양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준거가 아니라 개인이 사물을 지각하는 고유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Herman Witkin(1954)에 의해 확립된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인지양식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이다(강은경·김한일, 2010). Witkin은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조종사가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전체 장(field)에서 요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하였고, 장의존-장독립 인지양식이론을 확립하게 되었다(Witkin, Moore, Goodenough, & Cox, 1977). 김철성(2013)의 연구에서 인지양식의 개념은 위트킨과 그의 동료들인 베리(Berry), 무어(Moore), 구드너프(Goodenough) 그리고 콕스(Cox)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 되었다. 위트킨이 말하는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은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지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성향이다(김철성, 2013).

인지양식이란 인지적 측면에서 내용이라기보다는 방법에서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처리 과정의 일반화된 습관 즉, 개인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각, 사고, 문제해결 등에 관한 독특한 양식을 결정하는데 관계되는 일정한 태도, 선호, 습관적인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양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Witkin, 1977, 김정남, 2007 재인용).

첫째, 인지양식은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인지의 형태를 말한다. 즉 지각, 사고, 문제해결과 학습의 내용보다는 그 방법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둘째, 인지양식은 다면적인 차원(pervasive dimension)이다. 인지양식이 지각과 사고 등의 지적 특징뿐만 아니라 비지적인 면인 성격적 특징과도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셋째, 인지양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성(stable)을 보인다. 인지양식이 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적어도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됨을 뜻한다.

넷째, 인지양식은 가치판단에 있어서 양극적이다. 즉 인지양식은 능력적인 개념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지능검사나 성격검사처럼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뜻이다.

## 2)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성

장독립성이란 개인이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그 사물의 배경, 즉 장(field)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의 인지 양식이고, 장의존성이란 장(field)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인지 양식을 의미한다. 장 독립적인 사람은 사물을 지각하거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

(Field)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사물을 지각하는 개인적 특성을 말한다. 장의존적인 사람은 사물을 지각하거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Field)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개인의 특성이다(김철성, 2013).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은 사물을 지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장독립 인지양식자는 사물을 그 환경의 배경으로부터 독립시켜 별개로 인지하고, 장의존 인지양식자는 사물을 그 환경의 배경에 포함해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최문정·정동열, 2013). 장독립형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잘 분리할 수 있다. 방해요인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사교적이며, 다양한 자극 중에서도 추상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반면, 장의존형은 방해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신의 태도나 믿음을 결정할 때 타인의 의견에 의존한다(신명희 외, 2014).

Garger&Guild(1984)의 연구에 따르면,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은 학습유형, 교수유형, 학생 동기화 방법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장독립형의 학습유형은 분석적으로 지각하고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개념 그 자체에 관심이 많으며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강화를 가진다. 장의존형 학습유형은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개념의 일반적인 관계를 본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에 관심이 많고 외적으로 부과된 목표와 강화를 요구한다. 또 장독립형은 비판에 영향을 적게 받으나 장의존형은 비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교수유형에서는 장독립형은 강의법을 선호한다. 장의존형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토론을 선호한다. 학생 동기화 방법으로는 장독립형은 점수, 경쟁, 개인 목표를 통해 동기화가 되고, 장의존형은 칭찬, 교사와의 관계, 외적 보상(별, 스티커, 상)을 통해 동기화 된다(Garger&Guild, 1984). 위의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1]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차이(Garger & Guild, 1984, 신명희 외, 2014 재인용).

<b>학습유형</b>	
<b>장독립형</b>	<b>장의존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적으로 지각</li> <li>•섬세한 방식으로 경험: 구조나 제한 조건을 부여</li> <li>•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li> <li>•사회 과목을 단지 과제로 학습</li> <li>•개념 그 자체에 관심</li> <li>•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강화를 가짐</li> <li>•자신이 구조화할 수 있음</li> <li>•비판에 영향을 적게 받음</li> <li>•개념 획득을 위해 가설검증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으로 지각</li> <li>•전체적 방식으로 경험: 주어진 구조에 고착</li> <li>•개념의 일반적 관계를 봄: 폭 넓은 구별</li> <li>•사회 과목을 가장 잘 학습</li> <li>•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에 관심</li> <li>•외적으로 부과된 목표와 강화를 요구</li> <li>•구조화된 것이 필요함</li> <li>•비판에 영향을 많이 받음</li> <li>•개념 획득을 위해 관망자적 접근</li> </ul>
<b>교수유형</b>	
<b>장독립형</b>	<b>장의존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법과 같은 교수상황을 선호: 수업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li> <li>•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질문 사용</li> <li>•교수가 조직한 학습상황 이용</li> <li>•교사를 원리 적용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토론을 허용하는 교수상황을 선호</li> <li>•수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 사용</li> <li>•학생중심의 활동을 이용</li> <li>•교사를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피드백을 줌: 부정적 평가를 사용</li> <li>•학습을 조직·안내하는 학습환경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식</li> <li>•적은 피드백: 부정적 평가를 피함</li> <li>•따뜻하고 인격적인 학습환경을 형성</li> </ul>
<b>학생 동기화 방법</b>	
<b>장독립형</b>	<b>장의존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수를 통해서</li> <li>•경쟁을 통해서</li> <li>•활동의 선택, 개인의 목표를 통해서</li> <li>•과제가 학생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li> <li>•구조를 디자인 할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적 칭찬을 통해서</li> <li>•교사를 돕는 것을 통해서</li> <li>•외적 보상을 통해서(별, 스티커, 상)</li> <li>•다른 사람에게 과제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을 통해서</li> <li>•윤곽과 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li> </ul>

\*출처: 신명희 외 (2014), 교육심리학, p186-187

## 2. 학습자 중심의 감상 교육에 대하여

학습자 중심의 감상 교육에 대하여 현재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감상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자 중심 감상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설명한다.

### 1) 학교 미술 수업에서 감상 수업의 현황

한국의 미술교육에 감상이 도입되고 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교육과정상 감상교육의 내용을 보면 1차에서 5차까지는 ‘학생 작품’과 ‘자연미 및 조형품의 기능과 미 감상’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가 ‘학생 상호 작품’과 순수한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변화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감상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미술문화 이해’(미술사)와 ‘미술 비평’으로 중점화 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술의 본질과 독자성을 주장하는 본질주의와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등의 철학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미술과 교육은 <표현>과 <감상>의 균형을 취하게 되었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9). 미술 교과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감상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작가, 시대적·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비평 관점에 따라 작품을 판단 및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재영(2019)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술감상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감상 수업으로는 미술 작품, 미술과 그리고 미술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활성화하는 미술감상 학습, 학습자의 내적 반응을 보다 강조, 미술감상에 필요한 다양한 차원에 대한 균형감 갖춘 미술감상 학습을 강조한다(이재영, 2019).

실제 교육 현장에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영역 중 감상영역은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방해하는 교과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안도영, 2021). 실제 교육 현장에서 미술 감상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술 작품에 대해 감상하고 생각하고 느끼기보다는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황혜령, 2020).

미술표현 활동에서는 창의·융합을 통하여 학습자가 창조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미술감상 활동에서도 객관적인 개념과 원리보다는 학습자가 소통과 통합을 통하여 구성된 지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조적인 미술표현 활동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만 소통 중심의 미술감상 활동은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많다(이화식, 2019).

오늘날 학교 교육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평가 방향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교육부, 2015). 근래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교육 또한 오브제 중심(object-centered museum)에서 관람자 중심의 교육의 형태(visitor-centered museum)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과거와 달리 고정적 해석이나 정보 습득 중심이 아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관람자의 의미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 수용자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재해석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 안에서 관람자를 경험과 해석의 주체로 지위를 상승시킨다(이채원·김효정, 2020).

## 2) 감상 교육의 필요성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미술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미술 교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미술 감상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이은적 외, 2017).

김현정(2018)의 설문지 분석을 통한 미술감상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100명중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미술 감상영역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했지만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또 미술 수업시간 중 감상 영역의 비중을 전체 100명 중 55명이 그저 그렇

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감상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김현정, 201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감상 수업 경험이나 감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파일럿 스터디(예비연구 pilot study)를 진행하였다.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상 수업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인지 양식과는 별개로 미술감상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다. 작품 속의 의미를 찾고 미술가의 정보를 모르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학생들이 현대 미술 작품감상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이유는 중 하나는 현대 미술의 특성인 난해함에 있다. 작품 형태의 다양함과 비정형성, 소재의 일상성에 의한 혼란은 해석의 문제로 연결된다. 역사를 현재적 인식의 반영으로 본 크로체(Croce)에 의하면 현대 미술은 하나의 열린 체계로써 해석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하용석, 2006).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술감상 수업은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중요한 수업이다.

‘미술감상’이란,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형식과 내용을 관찰하며 수용하는 행위로, 향수, 관조, 감상 등의 측면에서 그 개념을 살펴 볼 수 있다(이주연·류지영·고황경, 2020).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고를 형성하게 하고 민족 및 전통문화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신소희·김효정, 2019). 미술 교과에서 감상 교육은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교육이다. 그리고 작품 혹은 작가가 속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미술 감상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생각을 교류할 기회이다. 그렇기에 미술교육에서 감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생각한다(현은령·임한빛·김정현, 2020). 김정·김혜숙·김용권의 연구에 따르면 미술감상 수업은 미술품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부

담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미술품이 갖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다. 그로 인해 각 개인이 갖는 질 좋은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이런 자세는 궁극적으로 미술을 이해하고 미술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미술감상 영역의 강화는 미술제작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학생들에게 고유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 정·김혜숙·김용권, 1988).

최근 미술교육 사조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미술 감상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미술 감상의 접근 방식 또한 미술의 내재적 가치를 살펴보자면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과의 연계, 관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풍부한 해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홍규 외, 2020). 이은적(2012)의 연구를 보면 미술감상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미술감상 활동은 단순히 조형학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작품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것을 제작한 작가의 삶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의 청소년기는 그 이전의 자기중심성 단계, 자아와 타자의 미분화단계, 자아와 타자의 상호 침투 단계를 벗어나 이제 타자와 사회에 눈을 돌리는 한편으로 자신의 내면, 자아에 눈뜨고 자신을 직시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의 탐구에 깊이 관계하면서 자신과 타자의 존재를 인간의 전체상으로 보여주며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미술,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이다. 미술은 예술에 의한 인간 성장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인간의 성장에 관여되는, 이를 위한 교육의 공공성 즉 미래 사회를 위한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교육적 관점에서 미술 감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류지영, 2018).

### 3) 학습자 중심의 감상 교육

박휘락은 작품에 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의 불변성, 이러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감상 교육을 비판한다(박휘락, 2003). ‘학습자 중심 감상’에서 감상의 목적은 의미의 구성이다. 이것의 교육적 배경은 성장관이며, 성장관은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자들의 내면에 있는 잠재 가능성을 계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윤정일 외, 2008).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작품을 잘 감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작품과 스스로 대화하는 것이다.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던져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답을 해 보는 것으로 그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하며 작품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이해가 따라온다(이은적 외, 2017). 학습자 중심의 감상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일방적이고 선적인 수업모형보다 학습자가 수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속에서 보다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면 나아가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혜진, 2019).

맥컴스와 휘슬러(McCombs & Whisler, 1997)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개인 학습자가 지닌 특성과 배경 등에 관심을 두며, 학습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모든 학습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기화되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 정의한다(McCombs & Whisler, 1997).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술 교과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외의 활동들, 즉 미술사나 미술 양식에 관한 수업들은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해 지식이 전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타 교과들처럼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의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중 Yenawine(1998)은 시각적 사고 학습(the Visual Thinking Strategies-VTS)의 방식을 통해 미술에서의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제안한다(임경은, 2017).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전 교육부부장(1983-1993)이었던 예나윈(Yenawine)이 말하는 ‘시각적 사고 전략’ <Visual Thinking Strategies: 약칭 VTS>는 시각적 사고를 위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류지영, 2015).

앞으로 맞이할 미래 사회는 고정되고 축적된 지식의 양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관 교육은 관람자의 주관과 해석이 들어간 의미생성을 중요하게 보는 ‘학습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사고하기를 기대한다(김지호, 2012). 학습자 중심 교육의 흐름은 17세기 이후, 기존의 교육환경이나 목표, 지식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게 되면서 등장했다.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학문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습자 중심 교육이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1995-1996)에서 강조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을 통해 부각 된다.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기본적 개념으로 기초를 이루기 시작하며 관심이 증대되었다(이주연, 2001).

### Ⅲ.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 방법 및 대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연구 대상의 선정 방법과 어떤 특성의 연구 대상이 연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것을 서술한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사용한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감상 수업에 대해 분석하고, 감상 수업에서 인지유형에 따른 특성을 연구한다.

#### 1. 질적 연구 방법

안금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술교육에서의 질적 연구는 교육 전반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기존 양적 연구가 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미술 교과 특성상 질적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안금희, 2001).

첫째, 지식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다중적인 진리이며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둘째, 미술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경험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셋째,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의 파악을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조용환, 1999, 안금희, 2001 재인용).

넷째, 질적 연구는 미술교육 현장 개선에 실제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다.

수량화 된 분석은 미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상징적이며 암묵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미흡하다.

연구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로 가공하여 획득한 자료가 아닌,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취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면담과 참여 관찰,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면담법은 사람들의 문화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질문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김윤옥 외, 2009).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써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잠입도형검사(Embedded Figure Test : EFT) 실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의존 학생과 장독립 학생 각 2명을 선별한다. 그 후 그들의 학교 미술 감상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미술교과수업에서 접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학생들의 미술 감상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미가 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 2.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차 인터뷰에서는 대구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잠입도형검사지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후 학생들의 평소 학습태도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

문지도 함께 병행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의사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더 많이 허용되는 비구조화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함께 수행했다. 비구조화 인터뷰는 주로 참여 관찰을 동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감상 수업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인터뷰에서 작품을 정하고 자유롭게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비구조화 인터뷰로 분류한다. 비구조화 인터뷰의 특성답게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김진희·김영순·김자영, 2015). 질문에 대한 답이 사전에 한정되어 있는 구조화된 인터뷰와 달리,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 자체를 청취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된다.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부분 이외에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감상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또 자신의 인지유형의 이해도와 선호하는 수업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다.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기도 한다. 반구조화 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중요점과 필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구 참여자도 답변 형식이 구조화 인터뷰보다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김진희·김영순·김자영, 2015).

본 연구에서는 2차 인터뷰를 한 학생 당 40~5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감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선호하는 유형의 수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학생이 현재 학교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미술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의 미술작품을 즉흥적으로 하나 선정하도록 하게 되는데 다양한 시대의 회화작품, 조각작품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미리 접해 본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원활한 작품감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감상을 말로 표현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 미술작품

을 정확하게 규정짓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의 좋아하는 작품이나 알고 있는 작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 접하는 작품으로 감상을 할 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보다 덜 자유로운 모습으로 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미술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학생이 감상하는 모습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장의존 유형과 장독립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내용을 분석 할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미술작품 감상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한다면 작품감상에서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작품을 여러 방면으로 - 예를 들어 작품에 있는 형태나 색에 대한 호감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쉽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현재 학생이 수업을 함에 있어 미술 학습의 불편한 점과 바라는 수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수업방법을 분석하고 교수 방법에 대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장독립-장의존 유형 학생의 선호하는 미술수업 방법과 각 유형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미술수업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에 대해 서술한다. 어떠한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모집하고 선정하였는지 설명하고 연구 대상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표로 정리하였다.

### 1) 연구 대상 선정 방법

본 연구는 학교에서 미술 감상 수업을 접해 본 중학교 학생들로 장독립형 2명과 장의존형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유형은 집단잠입도형검사와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참고하여 나눈다. 연구 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 한 이유는 학교에서 미술수업을 받으며 감상수업을 접해봤고, 중학교 학생들은 인지 발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잠입도형검사는 대구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제공한 잠입도형검사를 활용하였다. 총 10문제로 10분동안 그림에 포함된 도형을 찾는다. 찾은 도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장독립형”에 가까운 학생이고, 도형의 개수가 적을수록 “장의존형”에 가까운 학생으로 분류한다. 인지 양식에 따른 구체적인 반응 분석을 위하여 양극의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위 27%에 해당하는 학생 2명과 하위 27%에 해당하는 학생 2명을 선별하였다(임청환·남진수, 1999). 선별된 학생들은 미술감상을 위한 2차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 2차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흥미로운 미술작품을 선정하여 감상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감상 미술교육에서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특성과 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수업방안을 연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연구대상자들은 성장배경, 학업성취, 성별, 성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제외한다. 또한 학교 미술 감상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으로 학교 미술 감상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도 연구 참여가 불가하다. 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작품을 보며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해야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각이나 지적 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연구 참여를 제한한다.

##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1차 인터뷰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양하다. 성장배경, 학업성취, 성별, 성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성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2차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분석했다.

2차 인터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잠입도형검사와 설문지를 통해 통계를 낸 후 상위 27%에 해당하는 장독립적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과 하위 27%에 해당하는 장의존적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으로 총 4명을 선별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공통점으로 미술 감상 수업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장독립 유형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고, 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선호하고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래 [표2]는 2차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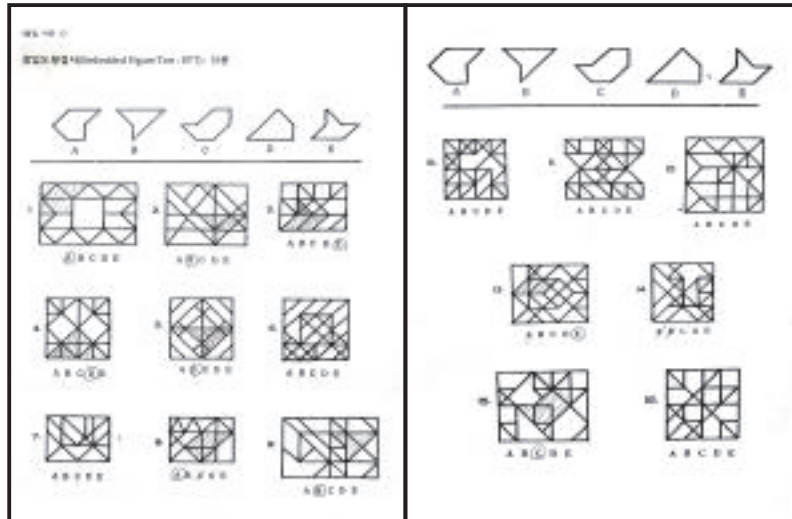
	학생A	학생B	학생C	학생D
인지 유형	장독립	장독립	장의존	장의존
성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나이	만 14세	만 14세	만 14세	만 15세
선호하는 학습방법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함.	자기주도학습을 잘함.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함.	협동학습을 좋아하고 학생 또는 선생님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좋아함.	협동학습을 좋아한다.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좋아한다.
공통점	미술 감상 수업의 경험이 있음			

## IV. 연구수행 및 결과분석

결과에서는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를 통해 장독립-장의존 유형을 가진 학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수업의 상황과 방법, 만족도를 조사하고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이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습 방법이 만족도가 높은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미술 감상 수업으로 인지유형에 따른 분반 수업에 대한 생각을 통해 어떤 수업이 디자인 되어야 할지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 1. 연구 참여자 1 : 학생A

####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그림 1] 학생A의 잠입도형검사지

번호	질문	답
1	새로운 개념에 자칫해 흥미가 없다.	○
	자신의 경험과 연계된 사례에 더 흥미가 있다.	○
2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
3	선생님의 도움을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 도움을 받는다.	○
4	노력한 결과로 일정한 성과를 해 성취감을 느낀다.	○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칭찬을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
5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정을 잃게 않는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정을 잃지 않는다.	○
6	문제를 풀었을 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하여, "새로운 것"이 더 흥미롭다.	○
	문제를 풀었을 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하여, "오래된 것"이 더 흥미롭다.	○
7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과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목표를 정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학습이 좋다.	○
8	시험 점수나 성적이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
	선생님의 칭찬과 누군가의 도움에 더 관심이 있다.	○

[그림 2] 학생A의 설문지

[그림1]을 보면 학생A는 잠입도형검사 문제 16개 중에 8문제의 답을 찾았다. 또 학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그림2]를 이용하였는데, 장독립 유형의 특성 8개중 6개를 선택했다. 두 개의 결과를 합산하여 16점으로 상위 27% 안에 들었다. 그러므로 학생A는 장독립 유형의 인지유형이라고 판단해 선별하여 2차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A는 잠입도형검사를 할 때 질문이 없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며 답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한 가지 도형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형을 대입해보고 찾기 위해 시도하며 찾기 어려우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설문지에서는 장독립 유형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을 동기화 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개념에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별학습을 선호하지 않으며 선생님의 도움 없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 누군가의 칭찬보다 시험 점수나 경쟁의 상황에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을 보아 장독립 유형 특성에 가

잡다.

##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① 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학생A의 미술수업 중 감상 수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A의 인지유형인 장독립적 인지 유형의 감상 수업에서의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미술 감상 수업의 이해도부터, 학생A가 경험한 감상 수업 방법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미술 감상 수업이 무슨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A: 미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아니면 시대별로 분류된 걸 통해서 그 시대에는 어떤 화가들이나 어떤 그림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런 식으로 각 시대별로 배우고 그거에 대한 느낀점을 공유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실기 수업 말고 미술감상 수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학생A: 지금 단순히 주를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사람들이 표현했던 것들을 통해 그 시대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과거의 메시지 같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학생A는 미술감상 수업을 미술사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미술사를 배우며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미술감상 수업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감상 수업이 필요한 이유도 현재뿐만이 아닌 과거의 시대사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자: 평소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학생A: 선생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련된 설명을 해주세요. 시대를 알려주고 그 시대의 화가 2-3명을 뽑아 알려주시거나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감상문을 쓸 때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수행평가를 통해 그 작가, 작품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연구자: 감상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A: 중상정도

연구자: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A: 저는 원래 미술 작품을 보는 걸 좋아해서 미술관도 자주가고 지금은 바빠서 자주 못가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감상수업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수행평가나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외워야하기 때문에 좀..

학생A가 경험한 감상 수업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현재 감상 수업의 만족도는 중·상 정도인데 그 이유가 평가 방법에 있었다. 감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행평가나 시험으로 연장되는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온전한 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과를 중요시 하는 학생A에게는 시험 점수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수행평가나 시험에서 암기를 해야 하는 이론이 아닌 자유로운 감상을 중점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점을 성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연구자: 감상 수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A: 1/3정도 되는 거 같아요. 타 활동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연구자: 그럼 미술감상 수업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감상 수업 비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A: 감상 수업이 타 활동보다는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감상 수업보다 타 활동이 더 많기도 하고 감상 활동이 주를 이루면 그림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수업을 좋아하겠지만,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표현활동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생각할 때 감상 활동보다 표현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입시 미술을 하거나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표현기술이 부족한 친구들은 표현활동을 안 좋아하진 않나요?

학생A: 미술 시간에 표현기술이 필요한 실기수업보다 새로운 만들기 같은 거.. 예를 들면 3D펜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건 입시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하기도 하고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의 비율은 타 활동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학생A는 이에 대해 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했다. 미술수업은 그리기 기술을 배우거나 미술에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흥미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 학교 미술 감상 수업이 대부분 설명식 수업방법이라고 했는데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A: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면수업으로 했을 때보다 집중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달력도 떨어지니까 더

지루해요.

연구자: 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학생A: 2학기 초반에 현대 미술에 대해 배웠던 게 있는데 그 속에 숨은 뜻이라든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들이 감상 수업을 하면서 이해가 가서 좋았어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꼭 필요할까요?

학생A: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A: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감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미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다면 그 친구들도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학생A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 이론에 대해 설명해주는 직접 교수법이라고 했다. 설명식 수업방법에 대한 안 좋은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수업이 어려워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이었고, 교수법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질문에서도 직접 교수법으로 수업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 당시 학습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 학생A는 감상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미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고 감상 수업으로 인해 미술에 관심을 갖고 또 미술관을 직접 찾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 비전공 학생도 감상수업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 스스로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 할 수 있다.

##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인지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신의 인지유형에 대한 이해도와 특성, 인지유형을 선별하여 분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여 학생A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연구자: 조별과제를 좋아하나요?

학생A: 아니요 조별과제 엄청 싫어해요.

연구자: 좋다면 그 이유는? 싫다면 그 이유는?

학생A: 모두가 조별과제를 잘 참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았어요.

연구자: 학습을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학생A: 문제에 따라 다른거 같긴한데, 대부분 혼자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는 혼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해요.

연구자: 학습에 있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A: 하나만 고르라면..... 결과요. 왜냐하면 과정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는 결론적으로 남는거잖아요. 남는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A는 조별학습이나 협동 학습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몫은 자신이 짊어지게 되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조별과제를 하며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학습하며 개념을 깨우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로 혼자 깨우치기 어려울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했다.

학생A의 잠입도형검사지와 설문지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의 인지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했다. 장의존 유형의 학생 중 학생D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학생은 모둠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A는 반대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남는것은 결과고 과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연구자: 평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미술 작품 감상을 하나요?

학생A: 평소에는 미술관에서 오디오가이드를 통해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연구자: 어떤 학습 방법이 본인과 잘 맞는 거 같나요?

학생A: 큐레이터분이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하면서 감상하는 것 보다 오디오가이드로 혼자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게 더 좋아요.

연구자: 어떻게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나요?

학생A: 여러 콘텐츠를 통해 수업을 해주셨을 때 제일 재밌었어요. 강의도 재미있으셨어요. 색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지루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학생A는 평소 미술관에 가서 미술작품 감상을 자주 한다고 했다. 갈 때마다

학생은 오디오가이드를 대여해 설명을 들으며 혼자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학생A는 설명식 교수법을 선호하는 학생으로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하는 수업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의 수업 방식으로 학습을 할 때 결과가 더 좋다고 했다. 색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으나 그 방법 또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교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수업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연구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A: 좋은 질의 강의형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 선생님께서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주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반대로 가장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A: 교과서만 읽는 수업은 지루해요.

연구자: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은 어떤 것 같나요?

학생A: 6학년 때 해봤었는데 저희 조는 다들 참여를 열심히 해서 좋았는데 제 친구네 조는 열심히 안 해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좀 그랬어요.

학생A는 자신이 선호하는 수업방법이 설명식 교수법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이끌어 가는 수업이나 조별 수업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학생A가 본인의 인지유형을 인지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감상 수업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또 본인과 같은 유형인 장독립 유형의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할 때, 혹은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할 때의 장·단점을 알아

보고 학생들의 생각을 어떤지 분석하였다.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A: 네 장독립..

연구자: 인지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과 일치하나요?

학생A: 네

연구자: 인지유형이 다른 학생과 수업을 하면 어떤 것 같나요?

학생A: 같은 유형끼리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다른 유형끼리 해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해서 같이 함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성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학생A: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연구자: 장점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A: 각자 서로에게 피해는 안 끼칠 것 같아요. 각자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단점은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같은 유형의 사람들 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거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맞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A: 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서로 다른 인지유형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A: 음.. 타협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나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한다면 내 미래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A: 네.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자신의 인지유형을 파악하고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와 함께 간단하게 특성을 이해했다. 인터뷰를 통해 인지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신의 인지 유형과 일치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지유형에 따른 수업 방식에 대한 생각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학생A는 장독립-장의존 유형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으며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 중 하나의 인지유형이 좋고 다른 인지유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은 양극적이며, 가치중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은 서로가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학생A의 평소 감상 태도와 방법을 알아보고 또 선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학생A는 평소 좋아하는 화가인 모네의 작품을 골랐다.



[그림 3] 클로드 모네, 수련, 150×197cm, 캔버스에 유채, 1916-1919

연구자: 편하게 감상 해보면 됩니다. 느낀점이나, 보이는걸 이야기 해도 좋고,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세요.

학생A: 구체적인 묘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색과 빛을 더 중요하게 그린 것

같아요.

연구자: 재료는 어떤 걸 쓴 것 같나요?

학생A: 음..

연구자: 우리가 작품의 제목을 몰랐을때도 아래쪽에 있는 수련이 꽃으로 보였을까요?

학생A: 저는 꽃이라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것 같긴해요.

연구자: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연못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생A: 아..

연구자: 어때요? 질문하고 서로 대답도 하면서 감상한 건 어땠나요?

학생A: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연구자: 작품을 보다 자세하게 본다거나 못 봤던 부분이 보이나요?

학생A: 네

연구자: 평소에는 어떻게 감상하나요?

학생A: 오디오가이드 같은걸 항상 대여해서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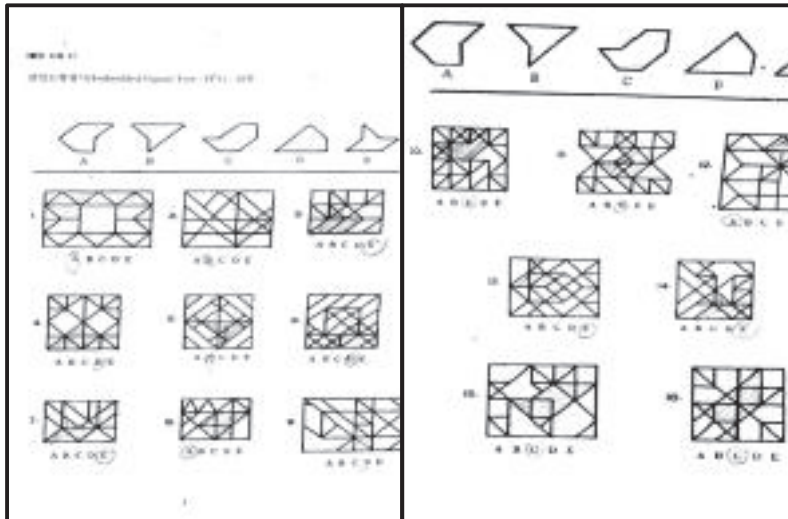
연구자: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오디오가이드 들으며 혼자 감상하는게 좋나요?

학생A: 혼자 오디오가이드 듣는게 좋아요.

학생A는 서로 이야기하며 활동적으로 하는 감상 수업보다 오디오가이드 같은 설명을 들으며 혼자 조용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작품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모습, 색감을 알아보고 느끼는 것보다 작품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더 흥미롭다고 했다. 감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2. 연구 참여자 2 : 학생B

###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그림 4] 학생B의 잠입도형검사지

번호	질문	답
1	새로운 개념에 직면해 흥미가 있다. 자신의 경험과 관계된 자료에 더 흥미가 있다.	☑ ①
2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①
3	선생님의 도움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가이드와 시범을 받고서 한다.	☑ ①
4	노력한 결과로 성적이 올랐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선생님께 긍정적인 칭찬을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 ①
5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감을 쉽게 받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는다.	☑ ①
6	문제를 풀었을 때 "최고야"라 느껴지면 정말 수 있을거예요."라는 동기유발적 피드백이 좋다.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 ①
7	선생님과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자율 학습보다 선생님이 목표를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학습이 좋다.	☑ ①
8	시험 앞이나 정면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선생님의 칭찬과 수고거를 받을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	☑ ①

[그림 5] 학생B의 설문지

그림[3]을 보면 학생B는 잠입도형검사 16문제에서 15개의 도형을 찾아냈다. 테스트를 하기 전 검사에 대한 궁금한 점과 필요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같은 답에 관련한 질문은 일절 없었다.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는 것에 몰두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형을 대입해보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4]에 있는 설문지에서는 장독립 유형의 특성 7개와 장의존 유형의 특성 1개를 선택했다. 설문지를 하고 나서 학생B는 스스로 “저는 웬지 장독립 유형의 학생일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인터뷰에 대한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봐서 두 가지의 인지유형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질문들을 보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문장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했다고 했다. 학생B가 추측했던 것처럼 학생B는 장독립 인지 유형에 가까운 학생이었다.

##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① 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먼저 학생B의 미술감상 수업에 대한 경험을 물었다. 감상 수업의 이해도와 학생이 경험한 감상 수업의 비율, 또 어떤 수업 방식으로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에 따른 감상 수업의 만족도를 물어보고 학생이 학교 감상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무슨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B: 잘 모르겠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이론이랑 수행평가만 했어요.

연구자: 예를 들어보면 이론 공부를 할 때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대해 배우고 감상을 한다거나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시는 것도 감상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기 수업 말고 미술감상 수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학생B: 뭔가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더 다양한 작품  
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평소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요?

학생B: 스크린에 작품을 보여주시고 학교 내에 있는 작품들은 직접 보여주  
셨어요. 학생들이 만든 것들 같은 거

연구자: 그럼 학습자들이 발표를 한다거나 학습지를 하진 않았나요?

학생B: 감상 활동에 대한 학습지는 없었어요.

연구자: 감상 수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B: 다른 활동에 비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감상 수업 비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B: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감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B: 좋은 작품을 감상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B: 표현활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연구자: 학교 미술감상 수업에서 안 좋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학생B: 기괴한 작품을 볼 때는 좀 불쾌했어요.

연구자: 학교 미술감상 수업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학생B: 픽토그램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많은 예시를 보면서 새로운  
걸 제가 직접 창조해내서 좋았어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꼭 필요할까요?

학생B: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연구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B: 교육을 받고 습득을 해야 학생들도 직접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미술감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학생B: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B는 처음 미술감상 수업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꼈다. 학교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 감상 수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감상 수업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미술감상 수업에 대한 질문에서 좋았던 점이나 안 좋았던 점을 질문했을 때 설명식 수업방법에 만족하기 때문에 학생B는 수업 방식에 대한 답이 아닌 수업 활동에서의 좋았던 경험과 안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학생B는 감상 수업을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비전공자의 학생들에게는 현재 미술수업의 시간은 충분하고 또 표현활동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 ②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학생B의 선호하는 학습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이 미술감상 수업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학습 방법을 선호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자: 조별과제를 좋아하나요?

학생B: 싫어해요.

연구자: 왜 싫어해요?

학생B: 저는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서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조별과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연구자: 학습을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학생B: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면 그냥 최대한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학생B는 조별과제를 좋아하지 않고 학습을 할 때도 스스로 자기주도학습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혼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는 약간의 힌트와 팁을 얻기 위해 질문하지만 어려워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며 문제 해결을 할 때 성취감이 더 크다고 한다.

자신의 인지유형을 알고 그에 맞는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다.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B: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연구자: 인지유형의 대표적인 특성과 일치하나요?

학생B: 네

연구자: 인지유형이 다른 학생과 수업을 하면 어떤 것 같나요?

학생B: 뭔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가고 싶어요.

연구자: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B: 장점은 저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와 줄 것 같아요.

연구자: 성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학생B: 네

연구자: 장점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B: 서로 라이벌로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서로서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학생B는 다른 두 인지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본인이 평소에 조금 어려워하던 교우 관계가 다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인지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해 장독립 유형의 학생은 어떤 수업방법과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또 성향에 맞는 수업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연구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방법은 뭐가 있나요?

학생B: 죽집게 강의처럼 중요한 것만 짚어서 알려주고 저 혼자 자기주도학습 하는 걸 좋아해요.

연구자: 반대로 가장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B: 지루한건 싫어요. 모둠 활동 같은 것도 별로예요. 산만하게 떠드는 게 싫어요.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맞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B: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연구자: 서로 다른 인지유형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방

법이 있을까요?

학생B: 분반을 해요.

연구자: 나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한다면 내 미래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B: 네. 원하는걸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을 얻기 더 수월 할 것 같아요.

학생B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분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분반 수업으로 같은 성향의 학생들끼리 학습을 한다면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B의 평소 감상 태도와 방법을 알아보고 또 선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작품은 <수렵도>를 선택하였다. 학생B가 학교에서 미술교과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작품이라고 했다. 시험문제를 틀려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림 6] 수렵도

연구자: 자유롭게 감상해주면 돼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해도 되

고, 작품에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도 되고 재료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학생B: 뛰어다니는 모습을 다리를 쭉 벌리는 걸로 표현해서 생동감이 잘 느껴지는거 같아요. 벽화라고 알고 있고 원근법을 무시했어요.

연구자: 더 말할 건 없나요?

학생B: 네 이정도..

연구자: 그러면 동굴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학생B: 표면이 거칠어 보여요.

연구자: 그러네요. 일반적인 매끄러운 종이같은 질감은 아닌거 같아요. 좀 깨져보이는 곳도 있는거 같고, 표면이 확실히 거칠어 보이긴 하네요. 그림에 보이는 하얀색 연기 같은 모습은 뭘까요?

학생B: 나무..?

연구자: 학생B의 말대로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네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것 같네요.

학생B: 네.

연구자: 이 그림은 왜 그린걸까요?

학생B: 음..

연구자: 초상화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 당시 사냥을 하는 모습, 즉 생활모습을 기록하기위해 그린 걸까요?

학생B: 아 네.

연구자: 지금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땠나요?

학생B: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해주는게 좋나요?

학생B: 네. 음... 그래도 뭔가 그림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하게 그림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감상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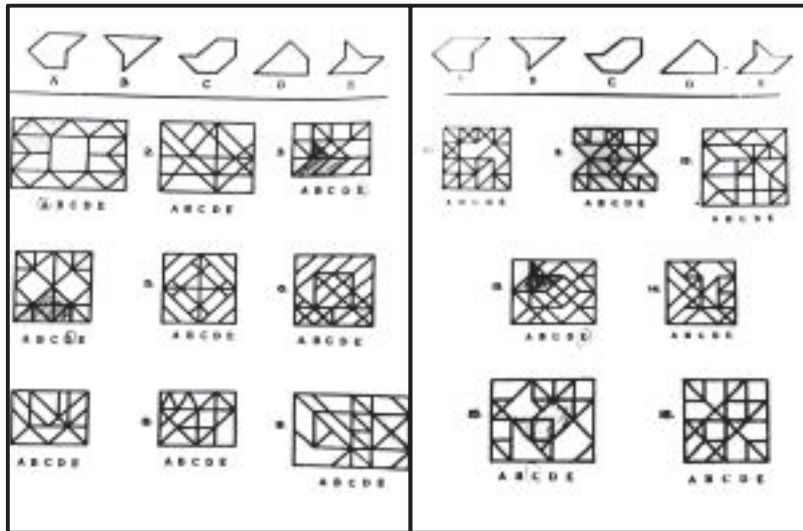
연구자: 어떤 학습 방법이 본인과 잘 맞는 거 같나요?

학생B: 저는 원래 하던대로 하던게 더 좋은 거 같아요.

학생B의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보다 한가지 한 가지를 관찰하며 분석했다. 학생B는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것에 대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더 좋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B는 현재 학교에서 하는 감상 수업처럼 일방적인 소통의 수업방법이 더 좋다고 했지만 그림을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림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면 타인과 소통하며 감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 3. 연구 참여자 3 : 학생C

####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그림 7] 학생C의 잠입도형검사지

번호	질문	답
1	새로운 개념에 자체에 흥미가 있다.	①
	자신의 경험과 관계된 자료에 더 흥미가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선생님의 도움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가이드와 시범을 얻고자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노력한 결과로 성적이 올랐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칭찬을 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②
5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6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맞힐 수 있을거예요."라는 동기유발적 피드백이 좋다.	①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율 학습보다 선생님이 목표를 정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 학습이 좋다.	②
8	시험 점수나 경쟁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생님의 칭찬과 누군가를 도울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	②

[그림 8] 학생C의 설문지

학생C는 잠입도형검사에서 16문제 중 4개의 답을 찾았고, 설문지에서는 장독립 유형의 특성 3개와 장의존 유형의 특성 5개로 총 점 7점이었다. 총 점이 하위 27% 안에 들었기 때문에 학생C를 장의존형 학생으로 분류하여 2차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C는 조별과제를 좋아하고 협동학습을 선호한다. 또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지시가 있을 때 결과가 더 좋다고 했다.

##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① 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학생C의 인터뷰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감상 수업 이야기와 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학생C는 감상 수업을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었고, 감상 수업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무슨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C: 아직 미술감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배운적은 없는데.. 미술 감상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느끼는 감정을 서술하는게 자신이 없어서요.

연구자: 그럼 미술감상 수업은 무엇을 하는 수업 같아요?

학생C: 평가..?

연구자: 무엇을 평가하나요?

학생C: 음...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실기 수업 말고 미술감상 수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학생C: 미적감각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요.

연구자: 평소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학생C: 잠깐 1교시 정도만 TV로 작품을 많이 띄어주셨어요. 설명도 좀 해주  
시면서

연구자: 그럼 발표를 한다거나 활동지를 한다거나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학생C: 없었어요.

연구자: 감상 수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C: 실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는 거라 비율은 좀 적은 거 같아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비교적 적다고 했는데 그럼 감상 수업의 비율은  
어떤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은지,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은지 아  
니면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지?

학생C: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연구자: 왜요?

학생C: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의무감으로 참여할 것 같고 또 이것보다 적으  
면 실기 수업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연구자: 감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C: 그냥 적당히.. 10까지 있다면 8-9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 정도면 만족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학생C: 미술 작품을 따로 찾아서 보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걸 수업에서라도  
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느껴져서요.

연구자: 학교 미술감상 수업에서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C: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학습지 같은걸 쓰고 반 애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게 좀 힘들었어  
요.

연구자: 학교 미술감상 수업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학생C: 흔하지 않는 기회다보니까 흥미가 느껴져서 좋아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꼭 필요할까요?

학생C: 비중을 많이 차지하진 않더라도 미술시간에 조금씩 하는건 필요하다고  
고 생각해요.

연구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C: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 그 경험들로 인해 시야가 넓어질 것 같아요.

학생C는 감상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적 소양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는 감상 수업의 비율은 적당하다고 했다. 표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의 시간 동안 하지만 그래도 표현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실기 수업이 더 중요하고 그림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중이 높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니 감상 수업은 학생들에게 낮은 경험인 것 같았다.

## ② 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인지유형과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한 장 의존형 학생의 특성과 일치했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은 1차 인터뷰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통해 정리하였다.

연구자: 조별과제를 좋아하나요?

학생C: 네. 거부감은 없어요.

연구자: 좋다면 그 이유는? 싫다면 그 이유는?

학생C: 혼자 하는 버거운 일도 다른 애들이랑 협력을 해서 해결하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연구자: 학습을 할 때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상호작용

용 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학생C: 네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C: 네 장의존..

연구자: 인지유형의 대표적인 특성과 일치하나요?

학생C: 네

학생C는 독립적으로 혼자 학습을 하는 것보다 모둠을 이루고 동료들과 함께 한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동 학습을 좋아한다. 혼자 학습을 하면 어려운 부분을 마주쳤을 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어렵지만 협동 학습을 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 하게되어 그 과정이 더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아 선호한다. 그렇다면 같은 유형의 학생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인지유형에 따른 수업 방식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 해보았다.

연구자: 인지유형이 다른 학생과 수업을 하면 어떨 것 같나요?

학생C: 결과가 좋을 거 같아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생C: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C는 다른 인지유형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할 때 서로의 다른점과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③ 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어떤 수업방법과 교수법이 장의존형 학생에게 바람직할지 알아보기 위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물어보고 반대로 비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연구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C: 조별과제 같은 거 좋아해요. 그게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연구자: 어떻게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나요?

학생C: 좀 더 강제성이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장의존 유형의 학생인 학생C는 조별과제를 통한 협동 학습을 좋아한다. 강제성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스스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닌 교사가 구조화하여 과정과 결과가 정해져 있는 수업을 할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의 인지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법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대해 인터뷰 해보았다.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맞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C: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연구자: 서로 다른 인지유형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C: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연구자: 나의 수업방법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한다면 내 미래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C: 죽을 때까지 학교에서만 있을 건 아니니까.. 사회에 나가면 다른 유

형들도 있을 거고 그럼 너무 저한테만 맞추면 안 될 거 같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어려워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C는 인지 유형별로 수업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분반 수업이나 인지유형에 따른 개별수업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했다. 자신의 미래에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유형을 학습자와도 함께 수업을 하고 경험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학생C의 평소 감상 태도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감상시간을 가졌다. 학생C는 호크니의 <풍덩> 작품을 선택했다. 감상 수업 시간에 접해본 작품이었고, 색감이 마음에 들어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그림 9] 데이비드 호크니, 풍덩, 243.8×243.8cm, 캔버스에 유채, 1967

연구자: 이 그림을 보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도 되고 이 그림의 색감, 의도, 오브제에 대해서 감상을 해도 돼요. 자유롭게 감상을 해봅시다.

학생C: 그림은 보통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작품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색감도 좀 팝아트처럼 강하진 않고 좀 더 부드러운데 특이한 것 같아서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장소는 어디인 것 같나요?

학생C: 미국에 개인적인 풀장 같아요.

연구자: 맞아요. 캐리비안베이 같은 사람이 많은 수영장이었다면 의자가 더 여러개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학생C: 네

연구자: 좋아요. 그럼 뭐가 더 보이는지 이야기 해 볼까요? 아무거나

학생C: 나무 우리나라 나무 같지 않아요.

연구자: 지금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땠나요?

학생C: 지나칠수 있는 부분을 보고 넘어가니까 작품에 더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는거 같아요.

연구자: 평소에는 어떻게 감상하나요?

학생C: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보고 넘어가는거 같아요. 설명만 듣고.

연구자: 감상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습 방법이 본인과 잘 맞는 거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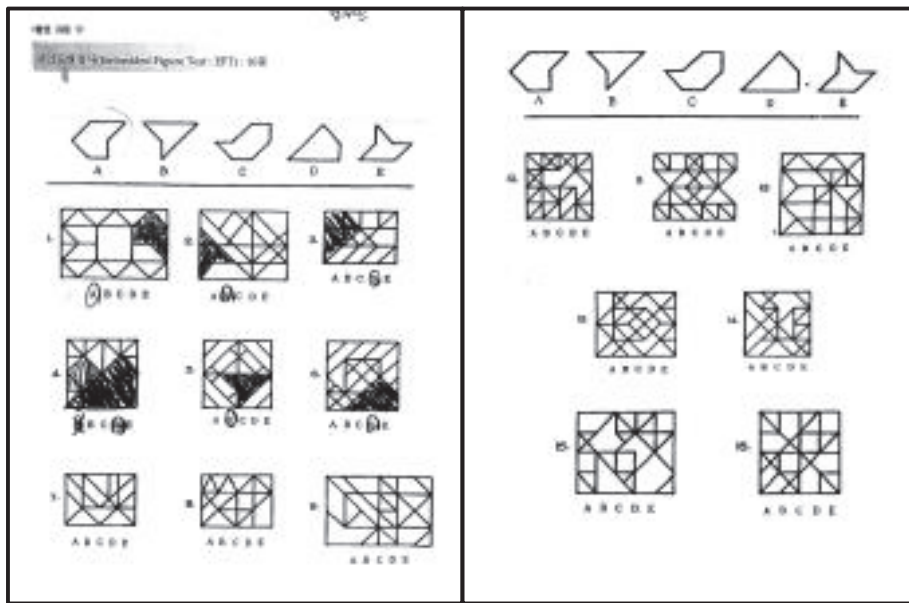
학생C: 자세하고 세밀하게 작품을 보는 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보는것도 재밌고 좋은거 같아요.

학생C는 작품의 색감과 전체적인 느낌을 감상했다. 또 연구자와 이야기 하며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감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조별과제를 좋아하는 만큼 타인과 소통하며 감상을 하는 것은 좋아했다. 일방적으로 작품의 정보를 듣고 넘어가는 방법보다 서로 이야기하며 꼼꼼하게 작품을 읽게 되니 더 흥미롭고 집중이 잘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4. 연구 참여자 4 : 학생D

##### 1) 잠입도형검사 결과 분석



[그림 10] 학생D의 잠입도형검사지

번호	질문	답
1	새로운 개념에 대해 흥미가 있다. 자신의 경험과 관계된 지식이 더 흥미가 있다.	① ☑
2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
3	선생님의 도움을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가이드와 시범을 받고자 한다.	① ☑
4	노력한 결과로 성적이 올랐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선생님께 긍정적인 칭찬을 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① ☑
5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
6	문제를 풀었을 때 "최소한 더 노력하면 풀 수 있을거예요."하는 동기유발적 피드백이 좋다.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① ☑
7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자율 학습보다 선생님의 목표를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 학습이 좋다.	① ☑
8	시험 점수나 경쟁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선생님의 칭찬과 누군가를 도움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	① ☑

[그림 11] 학생D의 설문지

학생D는 잠입도형검사는 16문제 중 2개를 찾아냈고 설문지에서는 장독립형 특성은 2개, 장의존형 특성 6개로 하위 27%에 해당했다. 그러므로 장의존 유형의 학생으로 선별되어 2차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D는 조별 학습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 한다.

잠입도형검사에서는 찾아야하는 모형이 좌·우가 바뀌거나 되거나 돌아가지 않고 크기도 동일하다고 안내했지만 같은 모양의 도형 찾는 것을 어려워 했다.

## 2) 연구 참여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 분석

### ① 학교 감상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감상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는 어떤지 또 감상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무슨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D: 작품을 보고 감상을 쓴다든가 그런 거..?

연구자: 실기 수업 말고 미술감상 수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학생D: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요. 서로 공유도 하고

연구자: 평소 학교 미술수업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요?

학생D: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  
야기 할 친구들이 있으면 발표했어요.

연구자: 감상 수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D: 적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미술감상 수업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감상 수업 비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적당한 거 같은지, 많은 거 같다거나  
혹은 적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학생D: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감상만 하다보면 지루할 수도 있  
고 다른 친구들이 감상보단 만들거나 그리기를 더 좋아해서요.

연구자: 감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D: 보통인 거 같아요.

연구자: 왜 보통인 것 같아요?

학생D: 감상 수업은 그냥 설명을 듣고 감상을 적거나 하니까 기억에 잘 안  
남아서요.

연구자: 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D: 안 좋은 점은 딱히 없어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요.

연구자: 학교 미술 감상 수업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학생D: 아니요.

연구자: 그렇다면 미술감상 수업이 꼭 필요할까요?

학생D: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D: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감상문을 내거나 작품을 감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D는 감상 수업의 만족도가 보통이었다. 주로 설명식 교수법의 수업을 받았던 학생은 수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표현 활동 수업이 더 즐겁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상 수업이 필요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학생들은 본인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관을 가거나 작품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면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내용을 얻고 또 감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② 인지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인지유형을 알고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인지유형에 따른 특성은 1차 인터뷰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통해 설명했다. 다른 인지유형과 다른 인지유형이 함께 수업을 하거나 혹은 분반 수업을 할 때 어떤 지 선호도를 조사했다.

연구자: 조별과제를 좋아하나요?

학생D: 네

연구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D: 팀워크가 잘 맞을 때 그때 오늘 성취감이 높아요.

연구자: 학습을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학생D: 네

연구자: 학습에 있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D: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별과제는 하면서 중간 중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D: 네. 장의존..

연구자: 인지유형의 대표적인 특성과 일치하나요?

학생D: 네

연구자: 인지유형이 다른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면 어떤 것 같나요?

학생D: 서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D: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D: 너무 다르면 중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자: 성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학생D: 네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연구자: 장점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D: 장점은 협동이 잘 될 것 같고 단점은 없을 거 같아요.

학생D는 성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학습을 할 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았다. 다른 인지유형인 장독립 유형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할 때는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다른 성향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

대로 같은 성향의 장의존 인지유형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다면 협동이 잘될 것 같고 단점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③바람직한 미술감상 수업에 대하여

학생D의 선호하는 수업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지유형의 다른 특성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좋은지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보았다.

연구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

학생D: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방법으로 하는거요. 지루하지 않게

연구자: 반대로 가장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D: 설명만 해 주시는 건 지루해요.

연구자: 나의 인지유형에 맞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D: 좋을 거 같아요.

연구자: 서로 다른 인지유형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D: 일단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각자가 일단 해보고 완성 된 것들은 모아서 서로 토론을 해보면서 의견을 모아서 또 하나의 작품을 합동 작품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나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한다면 내 미래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D: 리더십이 많아지거나 협동심이 좋아질 것 같아요. 과정에서 얻는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D는 장의존 유형의 특성에 맞게 설명식 교수법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룹을 이루어 활동하는 수업을 좋아했고, 사진의 인지유형을 고려한 수업방법으로 수업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학생D의 평소 감상하는 방법과 또 선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감상시간을 가졌다. 학생D는 뭉크의 <절규>를 선택했다. 유명한 작품이라서 선택했다고 한다.



[그림 12] 뭉크, 절규, 83.5×66cm, 캔버스에 유채, 1893

연구자: 작품에 대한 나의 느낀 점을 말한다거나, 학교에서 감상 수업을 할 때 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돼요. 작품을 한 번 감상해보세요.

학생D: 배경은 사람이 절규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시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흔들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배경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절규하는 사람도 같이 그린 것 같아요.

연구자: 뒷 배경에 이 절규하는 사람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나요?

학생D: 네

연구자: 배경이야기를 했는데 배경이 부드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이나요?

학생D: 약간 과장된거 같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연구자: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D: 절규하는 화가를 지켜보는 사람ियो. 도와주러 오는 것 같아요.

연구자: 평소와는 방법이 달랐는데 지금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땠나요?

학생D: 작품을 더 자세히 감상한 것 같아요.

연구자: 평소에는 어떻게 감상을 했었나요?

학생D: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고 설명 듣고 넘어가요.

연구자: 어떤 학습방법이 본인과 잘 맞는 거 같나요?

학생D: 얘기하면서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게 더 좋은거 같아요.

학생D도 연구자와 함께 소통하며 감상하는 것이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연구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감상에 참여했다. 장독립형 학생인 학생A와 B는 장의존형 학생인 학생C와 D보다는 비교적 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작품을 자세하게 감상하고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의존 학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로 소통하며 작품의 이론적인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닌 작품을 읽는 법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평소에는 설명식 교수법으로 항상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설명을 들을 때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작품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확대도 해보며 감상하니 좀 더 자세하게 집중해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감상 수업의 반복으로 스스로 작품 읽기가 수월해진다면 미술관에 가서 자발적으로 미술 작품감상을 하거나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감상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감상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차이점이 더 눈에 잘 보였다. 장독립형 학생은 설명식 강의법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장의존형 학생은 타인과 함께 소통하며 작품에 대한 느낀 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색감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처럼 선호하는 감상 방법과 정보가 다른 만큼 학교 미술감상 수업에서도 이를 고려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V. 논 의

이 장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감상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감상수업의 바람직한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독립-장의존 유형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더 올바른 인지양식이라 할 수 없다. 인지양식은 성장하면서 바뀔 수 있고 또 잠입도형검사나 학생의 특성만으로 한가지의 유형으로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지양식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에 대해 우열을 두지 않는 가치중립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편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교육,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 발달하게 된다. 특히 장독립성은 부모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에 의해서 나타나며, 사회계층과 사회화 유형에 있어서도 상류계층의 인성 지향적 사회화에서 주로 발달한다고 한다. 반면에 장의존성은 사회적인 배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적응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되어진다. 결국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발달하게 되고, 특히 사회배경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강상화, 1996). 그렇기 때문에 인지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하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을 관찰했을 때,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은 감상수업에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서로 원하는 학습 방법과 수업 방법이 달랐으며 그 특징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특성들과 일치했다. 하지만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학급에서 학생들의 인지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향의 소통으로

하는 강의법이 감상 수업에서 사용된다. 학생들의 다른 인지유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인지유형의 학생들은 만족하지만 다른 인지유형을 갖고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도가 보다 떨어질 것이다. 장독립적 학생들은 자신의 규범이나 가치에 의거하여 권위로부터 독립하고 능동적으로 분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반패 장의존적 학생들은 정보의 원천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에서 단서를 찾으며 사람들에게 강한 관심이 있다. 자기와 상호작용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는다. 이처럼 상반된 특징을 가진 인지성향의 학생들을 일방향의 접근으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최미량, 2004).

## 1.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감상 수업의 필요성

학교에서의 미술감상 수업은 학생들의 미적 감각을 일깨우고 후에 스스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 아동기에 가정이나 유치원 미술로 경험한 중·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미술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기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감상 수업을 통해 과거의 미술사조를 배우고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며, 세계에 현존하는 이름 있는 미술 작품을 접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문화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미래에는 그리기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감상 수업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술과 친해지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형태를 그리는 기술이 부족해 미술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도 감상 수업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생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미술

감상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직접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자신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표현활동을 위해서 작품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나아가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을 주며 독창적이고 자신이 만족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요즘 미술 작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물의 디자인으로 혹은 장식품으로 자주 접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에서 비전공자들을 위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획으로 친근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시대에 걸친 미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한 미술 감상 수업이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상기해 보면 4명 중 4명 모두가 자신의 인지유형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한다면 만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연구자: 자신의 인지유형에 맞는 감상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학생A: 전 좋을 것 같아요.

학생B: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학생C: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학생D: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인지유형은 둘 중 하나가 더 우월하다거나 올바르다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두 학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한 유형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인지유형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인지유형에 따른 감상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더 편하고 즐겁게 온전한 감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은 같은 인지유형끼리 수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연구자: 같은 인지유형의 학생과 수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학생A: 각자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학생B: 서로 라이벌로 좋을 것 같아요.

학생C: 서로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D: 좋을 거 같아요.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같은 인지유형끼리 수업을 한다면 서로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인지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교수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면 본인과 맞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차 인터뷰에서 진행되었던 감상 수업에서는 장의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작품 읽기를 하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은 바라는 감상 수업에 차이점이 있었다. 장독립형 학생은 작품에 대한 개념이나 정보를 설명식 강의법으로 수업 해주길 바랐다. 이는 분석적인 장독립적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감상한 작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비교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주로 혼자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그들은 작품의 전체를 감상하기보다 개체 하나하나를 보며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의존형 학생은 우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감을 감상했다. 또 그림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작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였다. 간단한 감상 시간을

가진 후 만족도에 대해 물었을 때 장독립형 학생은 평소대로 오디오가이드를 듣거나 설명식 강의가 더 편하다고 했지만 장의존형 학생은 함께 이야기하고 작품읽기를 하니 더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즐겁다고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주변의 지각적인 장에 영향을 받는 장의존적 특징이 보인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에 따른 감상 수업의 태도

	장독립	장의존
감상 수업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에 대한 개념, 정보를 설명식으로 강의해주는 것을 좋아함.</li> <li>•작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소극적임.</li> <li>•작품의 개체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하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선호함</li> <li>•작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참여함</li> <li>•작품에 대한 분위기, 색감, 전체적인 조형미를 이야기함.</li> </ul>

## 2. 장독립-장의존 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본 연구는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이 미술감상 수업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학생들의 인지 특성과 의견을 고려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특성마다 선호하는 수업방법을 분석하고 각 유형마다 만족할 수 있는 교수법을 생각해 보았다. [표4]는 1차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학생들 중 상위 27% 안에 드는 장독립형 학생 두 명과 하위 27% 안에 드는 장의존형 학생들의 선호하는 수업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장독립 학생 두 명은 설명식 강의를 선호했다. 설명을 듣고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장의존 학생 두 명은 동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조별학습이나 협동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두 유형의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가지의 교수법이 아닌 다양한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정남(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에 따른 수업방법과의 관련성을 본다면,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고도로 조직화 된 과제를 제시하거나 또는 덜 구조화된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장독립적 학생들은 덜 구조화된 학습과제에 그들 자신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장의존적 학습자는 보다 분명한 지시나 구조와 된 학습과제가 있어야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정남, 2007).

[표 4] 연구대상자의 선호하는 수업 방식

선호하는 수업 방식			
장독립		장의존	
학생A	학생B	학생C	학생D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한 설명식 강의	죽집게처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는 수업, 자기주도학습	조별학습, 협동학습	조별학습,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수업

앞서 진행한 인터뷰와 장독립-장의존 인지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로 장독립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전통적 교수법의 강의법과 문제해결학

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적절하다. 강의법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인식, 분석, 종합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문제해결학습을 동반할 때 보완될 수 있다. 강의법을 통한 학습을 수행하고 문제해결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스스로 과제를 구조화하고 학습한다면 장독립적 학생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강의존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수업하는 협동 학습과 프로젝트학습을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려워하는 강의존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인지양식에 따라 선호하는 교수법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미술수업의 시수나 미술 교사의 수를 고려해보면 분반 수업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장독립-강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공존하는 학급에서는 모둠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번호 순이나 무작위로 모둠(조)을 짜는 것이 아닌 인지유형을 고려해 장독립형 학생들은 장독립형 학생들끼리, 강의존형 학생들은 강의존형 학생들끼리 함께 모둠을 이룬다면 조별학습을 좋아하지 않던 장독립형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될 것이다. 방숙희·강완(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인지양식을 고려한 모둠편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상황에서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성별, 학업성취 수준,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둠을 편성한다. 이러한 모둠 편성 시 학생들의 인지 양식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방숙희 · 강완, 2017).

물론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을 분리하여 모둠을 편성하고 학습을 진행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인지양식 특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유형별로 모둠을 나누는 것이 무조건 옳은 해결방안은 아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 동료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김철성, 2013).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유형과 또 다른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모두가 어우러져 모둠을 이루었을 때 인지유형별로 모둠을 이루지 않아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학습자들이 골고루 섞인 모둠을 형성한다면 장독립-장의존형 학생들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이끌어주며 조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지양식에 따라 미술 감상 수업에서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인지양식의 차이가 학교 미술감상 수업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지란 외부의 자극을 정보로서 받아들이거나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용된 전략이다. 인지양식은 인지적 조직과 기능 수행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자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차이다. 자극형태를 지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기억이나 사고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은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개인이 사물을 지각할 때 그것을 둘러싼 환경, 즉 장(field)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독립-장의존으로 구별하여 두 가지 인지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려한 바람직한 수업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인지양식과 미술감상교육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다다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본 바로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습유형은 양극으로 달랐다. 본 연구자가 처음 연구를 구상할 때 예상한 대로 현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 감상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장독립형 학생들은 감상 수업의 방법에 대한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반대로 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지루하고 그저 표현활동을 하기 전 준비단계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작품감상을 할 때 연구자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질문하며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작품읽기를 했을 때 장독립적

학생들은 평소의 감상 수업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했고, 반대로 장의존적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처럼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의 학생들은 성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 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학습자간 격차를 줄이고 싶었다.

둘째, 본 연구자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성향의 학생들끼리 구성원을 이뤄 조별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습적인 면에서 발전을 할 계기가 있을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그 방식 또한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지 양식의 학생들이 모둠을 이룬다면 지향하는 학습 방법이 비슷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더 배려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양극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장독립-장의존 유형의 학생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환경, 타인과 계속 마주해야한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한가지의 강의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다양한 강의법의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 설명식 강의법을 지루해하고 비선호하는 장의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하고 신선한 자극을 주며 수업을 하거나 중간중간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한다면 장독립-장의존 인지유형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인지양식을 적용한 미술감상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연구자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은 선천적인(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사회배경과 같은 후천적인 환경과의 연관되어 발달하기 때문에 인지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은 어느 한쪽이 틀리거나 잘못된 인지 양식이 아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지 양식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장의존성에서 장독립성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인지별 특성을 이해하는 학습 방법을 알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다른 성향을 잘 이해하고 생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과 교수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교 미술수업에서 유형별 특색을 고려하고 기존의 수업의 취약한 부분을 수정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독립-장의존형 학생들이 분반 수업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학생들에게 잠입도형검사와 간단한 설문 혹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인지유형을 인식하고, 교사의 관찰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 후 학생들의 인지유형에 따른 수업 방향을 잡고 수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미술 교사의 비율이 타 교과에 비해 턱없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분반 수업을 통해 인지유형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독립-장의존 인지 양식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한가지의 교수법이 아닌 연구자가 제안한 방법이나 실험을 거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인지양식이 다른 학생들과 모듬이 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업 디자인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수업을 디자인 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배려와 이해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 이는 작게는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하려는 노력이 될 것이고 크게는 각각의 소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소양을 기르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참 고 문 헌

- 강상화(1996), 4, 6, 8세 아동의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경·김한일(2010). 온라인 교육용 게임에서의 인지양식에 따른 학습 몰입 경험 비교.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3(4). 62-68.
- 고흥규 외(2020). 융합교육으로서 미술 감상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초등교육**, 4(31). 193-212.
- 고혜진(2018). 학습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화중심 감상 교육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
- 김윤옥 외(2009). 『질적 연구 실천 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 김 정·김혜숙·김용권(1998). 미술감상교육의 연계성에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새방안 연구. **조형교육**, 14권. 45-81.
- 김정남(2007). Blended Learning에서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라 피드백 유형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호(2012). 『미래의 미술관: 국내외 미술관 교육의 역사, 현황, 대안』.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 김진희·김영순·김지영(2015). 『질적 연구 여행』. 성남 : 북코리아.
- 김철성(2013). 초등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미술표현의 차이.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4, 21-43.
- 김현정(2018).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황기(2014). 교수학습방법이 인지양식에 따라 조소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술교육논총**, 28(1). 61-88.
- 류지영(2018). 미술감상교육 루브릭 연구. **조형교육**, 68. 43-69.
- 류지영(2015).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조형교육학회**, 55. 67-97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 : 시공사.
- 방숙희·강완(2017). 학습자의 인지양식이 수학 과제 유형별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1(4). 621-641.
- 신명희 외(2014). 『교육심리학』 (4판). 서울 : 학지사.
- 신소희·김효정(2019). 미술 감상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7(5). p.235.
- 안금희(2001). 미술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교육인류학연구**, 4(3). 111-151.
- 안도영(2021).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한 온라인 미술관 감상 수업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외(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박영사.
- 윤정일 외(2008). 『신교육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이은적(2012). STEAM(융합인재교육)에서의 미술교과 내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술교육연구논총**, 33. 286-314.
- 이은적 외(2017).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서울 : 예경
- 이재영(2019).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 감상 학습 방안 연구 :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2). 69-92.
- 이주연(2001). 학습자중심의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 59-73.
- 이주연·류지영·고황경(2020). 학교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미술 교과서 내용

- 개선 제안: 동시대 미술, 지역사회 연계 미술(공공미술), 미술 감상·미술관교육의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73. p.251.
- 이채원·김효정(2020). 학습자 중심의 전시 감상 수업을 통한 미술관과 학교 연계 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61. 111-148.
- 이화식(2019). 대화 기술을 적용한 학습자 중심 감상법. **미술교육연구논총**, 58. 225-244.
- 임경은(2017). 미국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동향과 사례. **교육정책포럼**, 284. 31-36.
- 임청환·남진수(1999). 초등학생의 정신용량과 인지양식에 따른 과학탐구 능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9(3). 441-447.
- 최문정·정동열(2013).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이 대학생의 정보탐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26-147.
- 최미량(2004). 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용석(2006). 『현대미술이 난해한 까닭은』. 서울: 미공
- 한국조형교육학회(2016). 『미술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현은령·임한빛·김정현(2020).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동향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6(2). 603-613.
- 황혜령(2020).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세스폴리오법 활용 감상 수업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arger, S., & Guild, P. (1984). *Learning style: The crucial difference. Curriculum Review*, 23. 9-12.
- McCombs, B. L., & Whisler, J. S. (1997). *The learner-centered classroom and school: Strategies for increasing stud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A: Jossey-Bass.

Witkin H. A. , Moore, C., Goodenough, D., & Cox, P. (1977).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cognitive style and their  
education impli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 1-64.*

## **ABSTRACT**

### **A Proposal of Class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gnitive Style of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in Art Appreciation Class at School Field**

**Ji woo Kim**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Among the various types of cognitive styles, field independence and field dependence cognitive styles are the ones that are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from psychologist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contrasts with the type of intestinal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on. The intestinal standalone is a person who can separate himself well from the surrounding situation. In other words, it is not affected by obstacles. On the other hand, since it is difficult to ignore obstacles, the intestinal dependence type is interested in the social field and relies on other people's opinions when making decisions (Shin Myung-hee et al., 2014)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differences in preferred teaching methods in art appreciation classes according to students' cognitive styl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find out how students' cognitive styles affect art appreciation classes and propose a teaching method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Jang Independence-Jang Dependent cognitive styles.

First, the type of appreciation learning preferred by students of the Jang Independence-Jang dependence type seen through this study showed extreme differences. In the case of long-standing students who like to receive knowledge in one direction when conducting art appreciation classes as a way of showing and explaining works,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teaching method, but on the contrary, long-standing students were bored and thought it was just a pre-preparation stage of knowledge or expression activities. Unlike the previous method, when researchers and students asked each other questions, exchanged emotions, and read works together, Jang Independent students preferred the usual appreciation class method of receiving expertise. Conversely, intestinal-dependent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method through appreciation exchange with the person next to them. As such, it can be seen that students of the cognitive type of Jang Independence-Jang dependence have different tendencies and different preferred learning methods.

Second, referring to the results and interviews of previous studies similar to or identical to this study, it could be expected that if students of the same tendency form members and take group classes, it would increase students' satisfaction and develop in terms of learning. This is because the learning methods aimed at when students of the same cognitive style work

in groups are similar, increasing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among members and making it easier to exchange emotions. However, in addition to school lif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other groups or adults struggle due to differences in tendenci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ven a little in school educ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aching method rather than separate students of different cognitive styles. For example, it is a mixture of exchanging opinions during group learning and explanatory lectures that enhance expertise so that they can think for themselves. Jang Eui-han students who are bored and non-preferred with explanatory lecture methods can increase class participation if they give fun by talking with interesting examples or utilizing new content that is currently popular. If classes are conducted through these various teaching methods, it will be a class that satisfies all students of the Jang Independence-Jang dependence cognitive type. Since either of the Jang Independence-Jang Dependency cognitive patterns is not correct, understanding and acknowledging individual (learner) differences in any type helps healthy competition and creative thinking. In particular, efficient learning considering cognitive characteristics in art (art) appreciatio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a high-quality class that draws great sympathy from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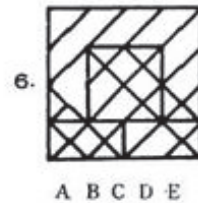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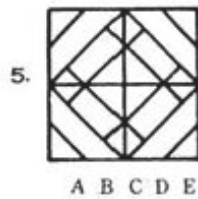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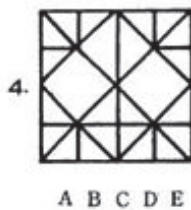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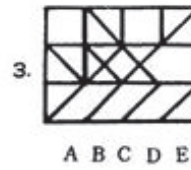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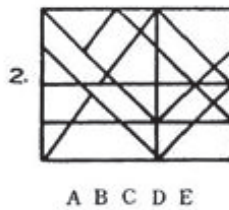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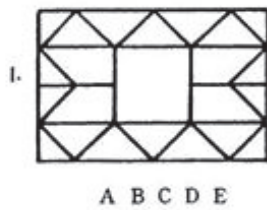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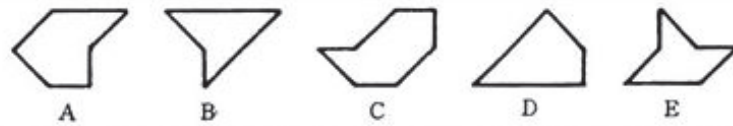
Furthermore,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field of school is and how much educational research reflecting the times is for us living in an era where we are familiar with mechanical convenience and difficult to face each other due to the outbreak of viruses that invad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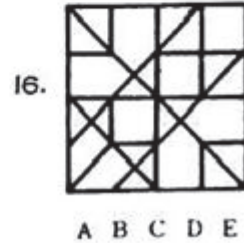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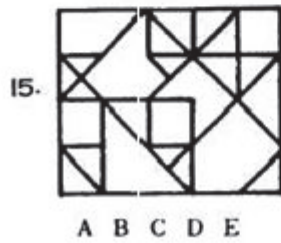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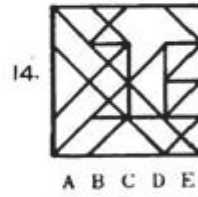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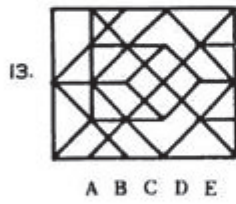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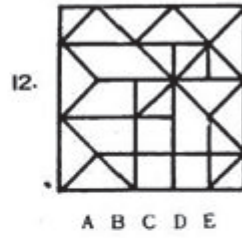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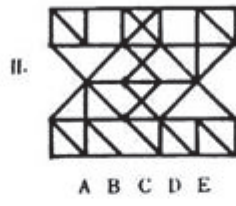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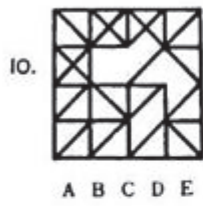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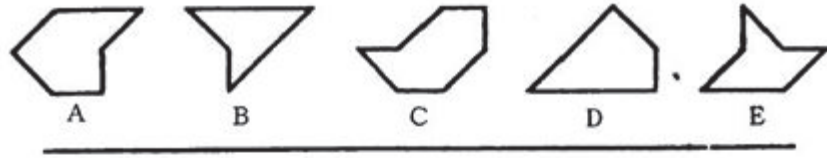
# 부 록

## 1. 잠입도형검사지

<붙임 자료 1>

잠입도형검사(Embedded Figure Test : EFT) : 10분





출처: 대구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수법 팀1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 방법

## 2. 설문지

번호	질문	답
1	새로운 개념에 자체에 흥미가 있다.	①
	자신의 경험과 관계된 자료에 더 흥미가 있다.	②
2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②
3	선생님의 도움 없이 새로운 과제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가이드와 시범을 얻고자 한다.	②
4	노력한 결과로 성적이 올랐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①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칭찬을 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②
5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다.	①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6	문제를 틀렸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맞힐 수 있을거예요."라는 동기유발적 피드백이 좋다.	①
	문제를 틀렸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②
7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①
	자율 학습보다 선생님이 목표를 정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 학습이 좋다.	②
8	시험 점수나 경쟁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①
	선생님의 칭찬과 누군가를 도울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	②